



자녀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신세대주부들.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쓰고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李勳求)

“집안일도 직업” 남편과 동등위치

살림꾸리며 컴퓨터 외국어 공부...자아실현 노력

은 학교에서 배워 알고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혹한 생활에 더 끌리기 때문에 이런 주부들중에 참여하는 사람은 대부분 30, 40대다. 솔테없이 '마실'도 안다. 마트도 영점과도 잘 모른다. 지낸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신세대 주부들은 선배 주부들보다 주체적이고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특히 부부사이에서 대를 넘어서 '부모'의(남편에) 접근한다'고 말한다.

『맛있는』 주부라고 해서 선배들처럼 슈퍼우먼이 되어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직장인과 집안일을 둘 다 완벽히 할 수 있었으며』

시어머니 설득 자기편
사회문제 관심났고 이웃

한양대 任眞彬교수(가정관리학)의 80년대와 90년 가사노동시간 비교에 따르면 10년새 4시간이 줄어들었다.

또 침단 가전제품과 가사대체상품이 가정으로 물려들었다. 이제 하루 8~5시간만을 가사에 할애하는 주부들이 여가를 자신을 위해 쓴다. 그래서 이들 2시간귀족을 겨냥한 업계에서는 문화센터, 레저공간 등 「시간소비형 산업」을 선전하기도 한다.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신세대 주부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흔치않은 일이다. 환경문제나 무공해음식의 중요성

자적·자치관을 갖고 있다. 이를 하향 마미 (XUMMY=Young Upwardly Mobile Mummy) 族이라고 한다.

『하리 세대』는 주부도 이웃의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는 노는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실용하면서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두죠』

결혼한지 6개월된 李善愛씨 (27세, 廣松坡구可樂亭)의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안을살을 쓸고 담고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틀립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어머니대를 보고 자랐다.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도 했었다. 그러나 고학력 주부가 취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주부』부식으로도 여기는 건 싫다. 주어진 상황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를 『軍婦부』 아닌 『가정부부』기간으로 여기고 킥킥터 어허글루루를 자기개발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주부도 많다.

10년새 4 시간 줄어

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화여대 李東璫교수(55)
 학)는 신세대의 결혼을 1
 || 1 + 1 + 또 하나의 자
 공식으로 설명한다. 남편
 나의 자기가 있는 그대로
 받는 한편 두 사람이 닮은
 의 자아가 등장한다는 풀
 고부사이고 옛날같이
 시집살이의 형태는 아니다
 통째 시어머니상을 고스
 시어머니에게도 '담한다
 "죽어간다"는 생각대신
 한다" "활을한다"는 실
 대치를 하는 것이 신세대
 리다. 쉽게 말해서 구박을
 해도 상하지 않는 결혼은
 머리가 먼저 나서서 시

1990년대인
시대는 아니다. 60년
시는 신지대라고 했
대도 나를대로 신신
었다.

93세에 돌아가신
니는그당시 우리들
리가 깨고 앞서 가
애기전 열화애기전
던 아들 퍼니리나 48
손녀를한데서 정보
곧 소회시켜 우리하
때는 할머니하고 대
것인지 친구와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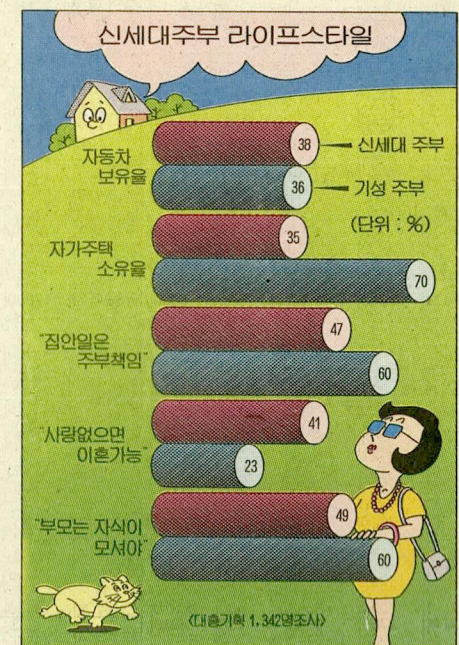
이러한

四

新
世
代

$\sum 93, 4, 25$ $\langle 4 \rangle$

주부



대흥기획이 최근 주부 1천3백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것에 따르면 만 20~34세의 신세대주부들은 선배주부들에 비해 '집보다 차 우선'이다.



자녀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는 신세대주부들.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힘쓰고 자녀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李勳求)

“집안일도 직업” 남편과 동등위치

살림꾸리며 컴퓨터 외국어 공부...자아실현 노력

은 학교에서 배워 알고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간단한 생활에 더 몰라기 때문에 이런 주부들의 참모습이 나타난다. 대부분 30, 40대. 출생이 1960년대 안다. 1970년대 출생과도 잘 모르고 지낸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신세대주부들은 선배주부들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부부사이에서는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남편이 주도하고 해서 선배들처럼 수퍼우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직장일과 집안일을 다 완벽히 할 수 있었어요?”

자적 자취를 갖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YUMMY=Young Upwardly Mobile Mommy) 族이다.

“우리 세대는 주부도 일종의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살림하면서 자아실현도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두죠.”

결혼한지 6개월된 이영희씨(27·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얘기다. “그리고 해서 살림살이를 하고 남편 뒷바라지에 전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싫어요.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온 어머니세를 보고 자랐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학력주부가 취업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고 ‘주부’로 직업으로 여기는 건 싫다. 주어진 생활을 활용해야 한다.”

그녀는 현재를 ‘주부’라 부르지 않고 ‘가정관리’로 여기고 컴퓨터, 외국어 등을 자기개발을 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주부도 많다.

10년새 4시간 줄어

한양대 이영희교수(가정관리학)의 80년대와 90년대 가사노동시간 비교에 따르면 10년새 4시간이 줄어 들었다.

또 집단가정제품과 가사대체품들이 가정의 노동력을 줄였다. 이제 하루 8.5시간만을 가사에 할애하는 주부들은 여가를 자신을 위해 쓴다. 그래서 이들 ‘시간강박’을 겨냥한 업계에서는 문화센터, 레저공간을 ‘시간소비형 산업’을 선정하기도 한다.

개인의 생활이 질은 신세대주부들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환경문제나 무공해음식의 중요성도 한다.

이탈초에 결혼한 김희영씨(28·현대그룹)는 “그래서 가사분담을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한때는 두 지게지고 애쓰느니 짐을 나눠지는 것이 합리적이란 생각이 든다.”

“제3의自我” 등장

“우리 세대만 해도 결혼이란 1과 2분의 1이 합쳐지는 것이었다. 여자는 자신을 주며 집안이 편안하다고 믿었다. 그

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이화여대 이영희교수(55·사회학)는 신세대의 결혼을 “1+1=1+1+1”로 묘사한다. 남편과 아내의 자아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합평두사람이 된 제3의 자아가 등장한다는 풀이다.

고부사이에 옛날처럼 맹목적인 집안일의 행태는 아니다. 전통적 시어머니상을 고수하는 시어머니에게도 “합당”하거나 “불합당”과 생강대신 “피한다” “활영한다” 실리적인 대치를 하는 것이 신세대다. “쉽게 말해서 구박을 당해도 상처받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머리가 먼저 나서서 시어머

나와 ‘여성끼리의 연대’를 모색, 자기편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자식이라면 딸을 제외하고는 “오나” “해운” “선배주부”와 달리 신세대주부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희생하자는 없다. “나는 사교방식을 갖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아이에게 적체감을 갖기보다는 ‘일하는 엄마’에 대해 태어난 것도 ‘제3의自我’를 말한다.

그런데서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이 신세대다. 노후보장이나 자녀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전세대와 다르다.”

6세 4세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차미씨(30·서울대산구원병원 산호아파트)는 “내가 아니라 사회를 키운다는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학교때 배운 여성학과 사회학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합당’과 ‘불합당’의 절충인 셈이다.

엄마의 눈빛 하나에서도 엄정단정함을 받고 아이를 보며 “그는 ‘엄마’라는 직업이므로 사회현의 주체도 될 수 있을”을 생각한다”고 했다. (金順德)

활동한 가정위해 양모를

내가 보는 신세대主婦像 尹男慶(작가)

1990년대인 요즘들만 신세대는 아니다. 60년대도 그렇지는 신세대라고 했었고 70년대도 나름대로 신세대라고 했었다.

93세에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는 “그 당시 우리를 보던 더머리가 깨고 앞서 가셨다. 음악 애기인 영희애기전 9살때부터 아를 머니나 48명의 손자 손녀들한테서 정복을 듣고는 곧 소환시켜 우리하고 애기할 때는 할머니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친구와 하고 있는 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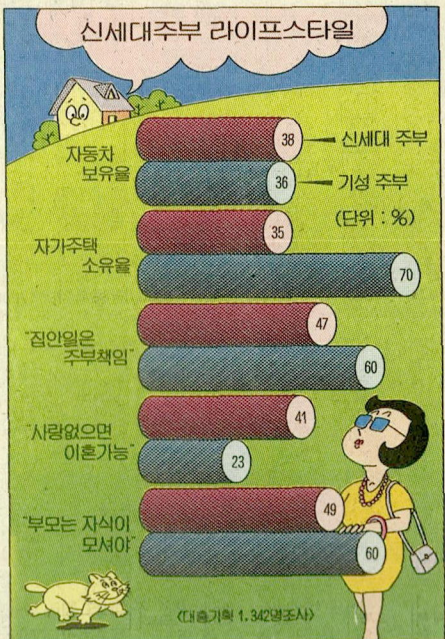
나와 ‘여성끼리의 연대’를 모색, 자기편을 만드는 경향이 있다.

자식이라면 딸을 제외하고는 “오나” “해운” “선배주부”와 달리 신세대주부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희생하자는 없다. “나는 사교방식을 갖고 있다. 취업주부의 경우에도 아이에게 적체감을 갖기보다는 ‘일하는 엄마’에 대해 태어난 것도 ‘제3의自我’를 말한다.

그런데서도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노력하는 것이 신세대다. 노후보장이나 자녀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자녀가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 자체에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전세대와 다르다.”

6세 4세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차미씨(30·서울대산구원병원 산호아파트)는 “내가 아니라 사회를 키운다는 생각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학교때 배운 여성학과 사회학을 자녀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합당’과 ‘불합당’의 절충인 셈이다.

엄마의 눈빛 하나에서도 엄정단정함을 받고 아이를 보며 “그는 ‘엄마’라는 직업이므로 사회현의 주체도 될 수 있을”을 생각한다”고 했다. (金順德)



대흥기획이 최근 주부 1천3백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20~34세의 신세대주부들은 선배주부들에 비해 “집보다 차 우선”이다.

간편한 생활을 추구하여 “인스턴트 식품의 맛과 영양이 좋다”고 여기며 “20-34살主婦 ‘집보다 車우선’”

정장보다 캐주얼의상을 즐긴다.

이들은 한 가정의 안주인이라기보다 독립된 주체로서의 진보적 가치관을 보인다. 주부는 집에 있어야 한다거나 아이를 꼭 낳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으며 “자녀가 있어도 필요하면 이혼할수 있다”는 데 기성주부보다 높은 응답률, “부모를 모시는 것이 좋다”는 데는 낮은 응답을 했다.